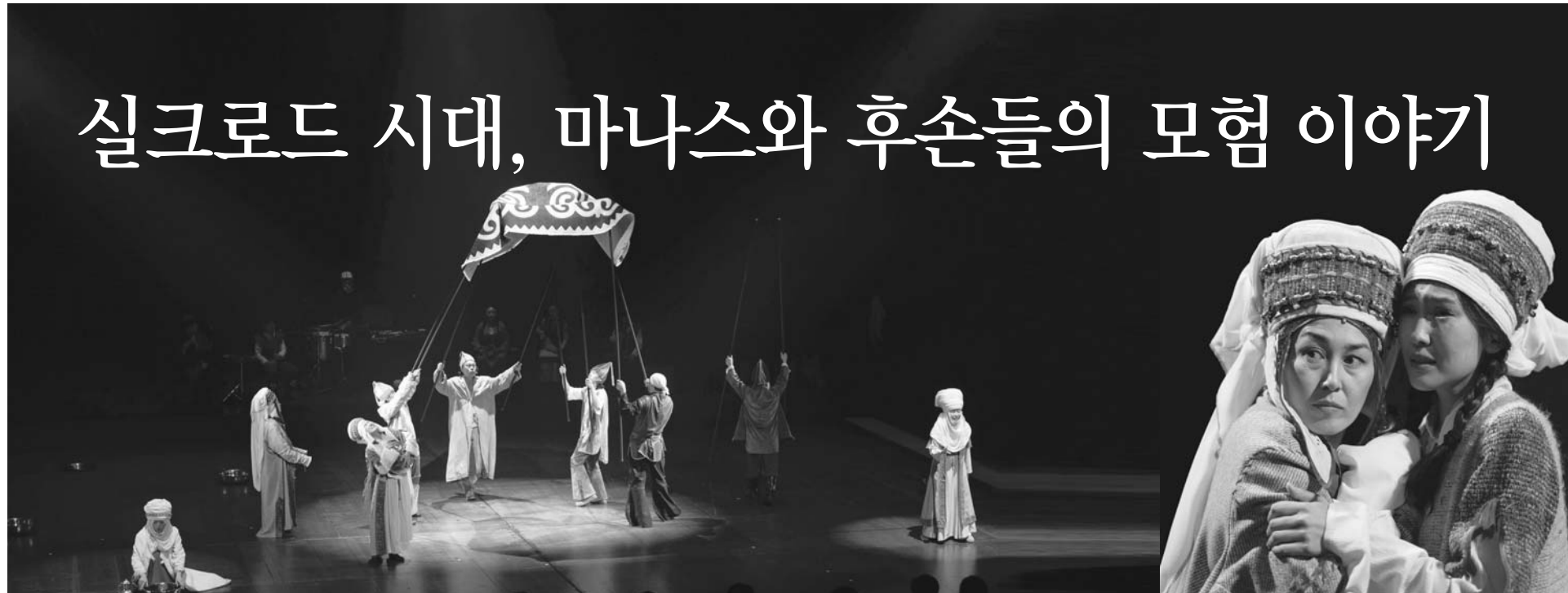




실크로드 시대, 마나스와 후손들의 모험 이야기

키르기즈 국제협력공연 '세메데이' 28-29일 ACC 극장1

키르기즈 민족 영웅인 '마나스' 대서사시를 원작으로 하는 공연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마나스 서사시'는 고대 실크로드 시대를 지휘했던 마나스와 그 후손들의 모험과 투쟁을 담은 이야기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 문학 중 하나다. 이 서사시의 두 번째 막이자 가장 인간적인 영웅으로 평가받는 마나스의 아들 '세메데이' 이야기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펼쳐진다.

세메데이

ACC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과 29일 오후 2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세메데이' 공연을 올린다. 지난해 시범공연을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세메데이'는 키르기즈 국립극장과의 국제협력공연이다. '세메데이'는 2023년 키르기즈 현지 조사부터 시작해 키르기즈와 한국을 오가는 양국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지난해 시범공연으로 관객과 처음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 문학

'마나스 서사시' 원작

문화적 다양성 담은 오브제음악극

만났다. 이번 공연 이후 오는 12월 세메데이 본국인 키르기즈로 건너가 국립오페라발레극장 투어 공연을 끝으로 3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공연은 유목, 실크로드 등 중앙아시아 문화 및 사실주의 연기 양식과 한국 광대 움직임의 만남으로 관객에게 이국적이면서도 익숙함을 선사한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배신, 운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 문학과 통한다. 특히 직관적인 드라마 구성과 음악이 대사처럼 들리는 오브제음악극 형식으로 국내외 관객이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키르기즈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 프랑스 음악감독과 키르기즈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협력은 ACC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의 유기적 앙상블을 제공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세메데이 공연은 우리나라와 키르기즈공화국 간 문화산업 협력의 성과물"이라면서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한 영웅 이야기를 통해 낯설지만 가까운 키르기즈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2만원으로 7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연은 ACC와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산물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협력국의 경제·문화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ACC는 2022년부터 ODA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등의 문화자원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은 이번 공동제작사업을 위해 2년간 약 5만 달러 규모의 제작 예산을 유지했다. /최명진 기자



대한민국 끝과 끝 잇는 국악 무대

22일남도국악원-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교류연주회

전남 진도와 강원 춘천이 음악으로 만나는 전국 양끝의 특별한 교류 무대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사진과) 함께 2025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합동교류연주회를 선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창단된 강원도의 대표적 국악연주단체로, 전통의 재해석과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축해왔다. 전통음악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창작 국악을 개발해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진도를 주제로 새롭게 만든 국악관현악 '빛나는 섬'과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를 바탕으로 한 남도들노래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들노래'가 초연된다. 이어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국악관현악 '천년이 내리는 마을', 민요 모음곡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 (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우수작품전'

국립광주박물관, 내달 31일까지 수상작 전시

국립광주박물관이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전을 연다. 전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전시실 1층 지역문화실에서 열리며, 어린이 시선으로 본 문화유산의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담은 4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대회에는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150명이 참여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 내 유물을 관찰하고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창의력·묘사력·표현력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으뜸상 3명, 머금상 6명, 솜씨상 14명, 꿈나무상 23명 등 총 46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18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명진 기자

'혁명적 울림 선사'...광주시향 400회 무대 빛났다

지역 대표 교향악단 위상 확인

광주시립교향악단의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이 지난 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광주시향은 전국 교향악단 중 여섯 번째로 400회 정기연주회를 달성하며 지역 대표 교향악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 광주시향은 '혁명가들'이라는 부제를 통해 시대적 억압 속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으로 자유를 표출한 두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를 조명했다. 치밀한 해석과 밀도 높은 앙상블을 바탕으로 두 작곡가의 서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첫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연주됐다. 대담한 형식과 폭발적 에너지가 어우러진 이 작품에서 그는 강렬함과 섬세함을 오가며 높은 기교를 선사했다. 이어 펼쳐진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에서는 비극적 긴



장, 절제된 감정, 전진하는 힘이 어우러진 작품의 정서가 더욱 두드러졌다. 광주시향은 탄탄한 사운드와 유기적인 호흡으로 20세기 대표 교향곡의 진폭을 깊이 있게 구현했다. 특히 4악장으로 이어지며 점차 고조되는 흐름은 객석의 몰

입도를 높였고, 공연은 뜨거운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내년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시향은 이번 40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확인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

+